

하치모리 이사리비 온천

하치모리는 일본의 서쪽 바다와 시라카미 산지의 산들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16세기 오마고시 가도가 정비된 이후 여행자들이 하치모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국도 101 호선과 고노선은 아키타와 아오모리를 잇는 역사적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고노선의 아키타 시라카미역 건너편에는 하치모리 이사리비 온천 리조트가 있는데, 현지 별미로 아키타현의 현어(県魚)인 하타하타(도루묵)의 이름을 따서 ‘하타하타관’ 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리조트 시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입욕 또는 외부 직판장에 채소를 사러 오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온천욕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일본의 관습입니다. 거의 모든 현대 일본 가정에는 목욕탕이 있지만, 많은 일본인은 온천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타하타관은 하치모리에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건설되었지만, 대부분의 온천 이용객은 인근 주민입니다. 온천은 그곳에서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정한 일본의 시골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